

청정매력 칼칼~ 백팔번뇌 훌훌~

전북 장수 '뜨봉샘 생태공원·수분마을'

전북 장수군은 개발에서 한발 비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환경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와 금강, 섬진강의 물줄기가 어우러진 산과 물의 고장. 장수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과 풍부한 물길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천연생태지역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곳은 장수읍 신무산 8부능선에 자리한 장수 '뜨봉샘 생태공원과 수분마을'이다. 지난해 11월 이곳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뜨봉샘 생태공원과 수분마을'로 2시간 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깊은 산속 웅달샘과 동화속 자작나무 숲을 가진 '뜨봉샘 생태공원'

신무산의 금남호남정맥이 둘러싼 '뜨봉샘 생태공원'은 그 자체로 한 폭의 풍경화다. 이 일대는 금강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수원함양보호림으로 지정된 보호

로 가는 길목마다 향토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정겨운 조형물 다수도 나그네를 반긴다. 장수 '뜨봉샘 자작나무 숲'은 강원도 이남의 유일한 자작나무숲으로 4만 2064㎡ 규모에 자작나무 2000주가 서 있다. 지난해에는 자작나무숲 아자수 매트 등산로 옆에 구절초 18만본이 식재됐다. 자작나무와 구절초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빼곡히 자리잡은 자작나무의 하얀 표피에 숲의 정령이라고 불리는 지흔(枝痕)들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작나무 숲을 지나고 나면 드디어 깊은 산 속 웅달샘인 '뜨봉샘'을 만난다. 졸졸졸 흐르는 물은 금강의 발원지로 수분천을 따라 흐르다 금강 본류와 맞닿는다. 진안군 용담댐과 무주군, 충북의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의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등 17개 시군을 물길 따라 천리길을 흘러 흘러 군산 하굿둑을 거쳐 서해에 다다른다.

'뜨봉샘'이라는 이름에는 재미난 전설이 담겨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전, 신무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날 꿈에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며 그 무지개를 타고 봉황새가 내려올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봉황이 올라간 곳을 찾아가 보니 작은 웅달샘이 하나 있었다. 그곳이 바로 뜨봉샘이었다. '봉황이 날아올랐다'는 의미라고 한다.

◇'물뿌랭이'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수분마을'

금강의 발원지인 깊은 산속 웅달샘 '뜨봉샘'을 지니고 있다 하여 '물뿌랭이 마을'이라고도 불리고, 신무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북으로는 금강, 남으로는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 자리해 '수분마을(수분령)'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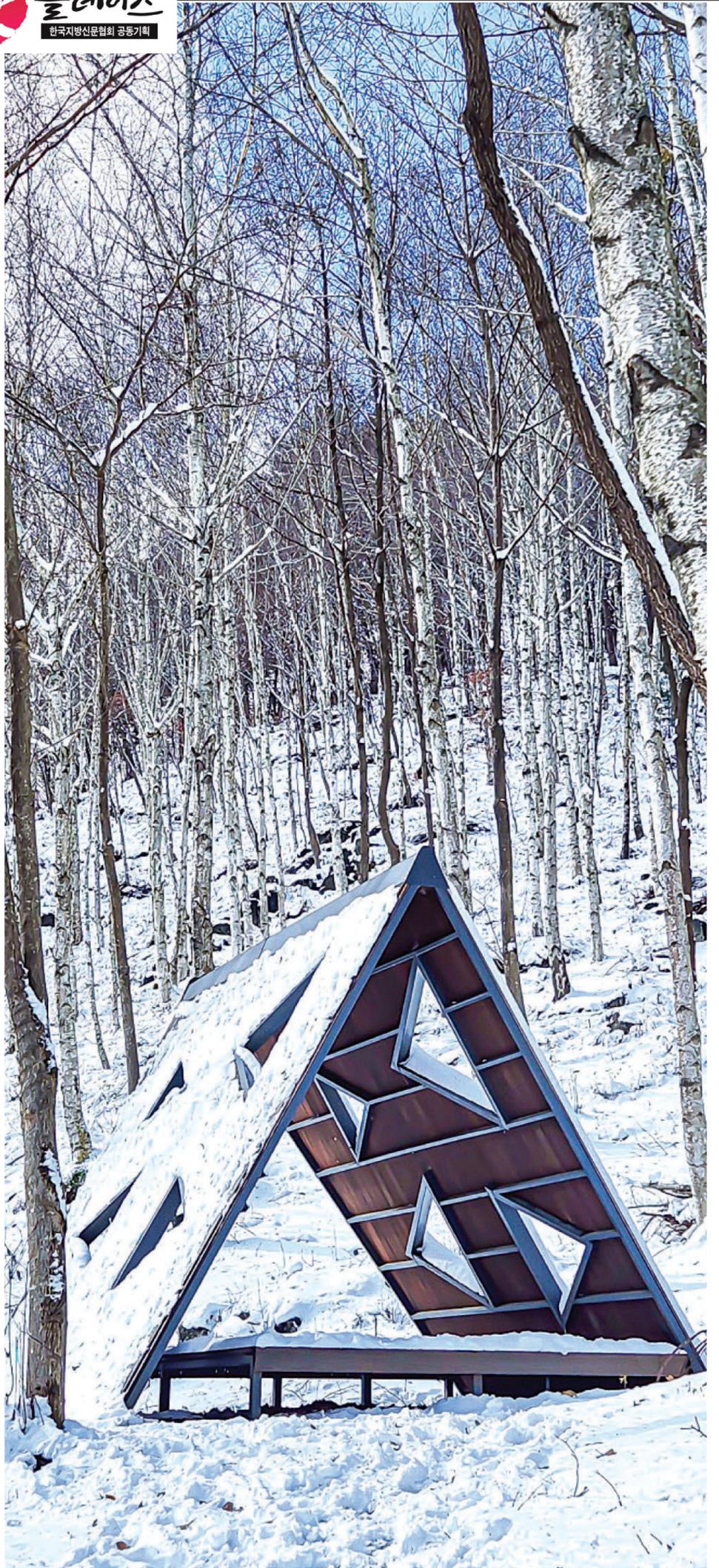
이곳이 생태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다. 수분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추진으로 2016년 '자연스런 실천마을' 공모 당선,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2009년-2017년, 3회 연속 지정) 등 큰 성과를 이뤄냈다. 또 군과 마을이 협력해 주민들이 에코매니저로 양성되고, 주민 해설사들이 직접 마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수분마을 '생태밥상'의 손맛을 책임지는 어머님들은 메뉴 연구와 개발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며 생태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수분마을은 조선 최대 천주교 탄압 사건인 병인박해(1866) 때 피난한 신자들이 만든 교우촌이 그 기원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주민이 천주교 신자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엔 마을 내 수분공소에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 그 인문학적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어져 온다. 특히 수분마을에는 병인박해 이후 세운 '장수성당 수분공소'가 있다. 현재 수분공소는 1920년대 지은 한옥 성당으로 건립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다.

장수 '뜨봉샘생태공원'에서 '수분마을'까지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수분마을의 공소까지 찾으면 두 시간가량 걸린다. 두 시간의 여행 속에서 뜨봉샘의 자연적 가치, 역사적 가치, 인문학적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일보=이재천 기자, 사진제공=장수군



자작나무 숲을 지나서 만난 깊은 산 속 웅달샘인 '뜨봉샘'. 졸졸졸 흐르는 이 물이 금강이 된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진다.

'금강'의 발원지 '뜨봉샘 생태공원'

해발 897m 자작나무숲·수달 등 휘귀 동식물 서식
진안 용담댐·무주군 등 17개 시군 물길 따라 서해로

뜨봉샘 품고 있어 '물뿌랭이 마을'

장수군·마을 협력 주민 에코매니저·해설사 양성
자연·역사적 가치 알리고 생태관광 발전 노력 지속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 뜨봉샘이 있다. 깊은 산 웅달샘 '뜨봉샘'. 이 샘은 4대강의 하나인 금강의 발원지, 즉 첫 물이 솟아나는 곳이다.

'뜨봉샘 생태공원'은 뜨봉샘 '물뿌랭이'에서 연원하는 물길은 물론 이와 연계된 생태공간을 말한다. 이곳에선 금강천리 시작점에 자리한 자연의 품에서 고요한 물소리와 함께 특별한 자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자작나무숲과 수국정원 등이 아름답게 조성돼 있고 하늘다람쥐, 수달, 수리부엉이, 꼬리명주나비, 세뿔투구꽃 등 자생하는 휘귀 동식물도 서식하고 있다. 1급수 지표종인 옆새우와 가재가 서식하는 등 금강의 발원지답게 자연의 보물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장수 '뜨봉샘생태공원'은 수분마을 위 11만평 부지에 금강사랑 물체험관(지상3층, 지상1층), 방문자센터, 물의 광장, 생태연못, 자생 야생화 근각지, 생태놀이터 등 금강의 생물자원과 생태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생태 및 문화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특히 겨울엔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에서 내뿜는 피톤치드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여름에는 뽕나무와 산수국, 가을에는 투구꽃과 구절초, 그리고 봄날에는 꿩의바람꽃, 태백제비꽃 등 사계절의 식생들을 보는 묘미가 있다.

해발 897m로 꽤나 높은 곳에 위치한 뜨봉샘. 이곳으



뜨봉샘 생태길 걷기행사 참가자들이 천연 자연 그대로의 푸릇푸릇한 생태연못을 지나가고 있다.